

첫 국무회의

- 머리말 -

“선진국을 달성하는 자세로 국정을”

국회가 시끄럽고 국민들 보기에는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다. 또 실제로 국회가 원만치 못하고 또 국민들에게 조금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국회에서 우리 정부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들은 통과시켜 주셔서 새해 계획에 큰 차질은 없이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된다.

그 점에서 입법부에 대해서도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다. 물론 아마 실무 공무원들은 연말 좀 전에 다 마쳐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계획 다 세우고 연말까지 다 예산 마무리를 하고 새해 준비하고 좀 쉬고 출발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그래서 새해 들어서까지 작년 예산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고 불편이 있겠지만 그러나 걱정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국회가 대강 꼭 필요한 것만은 최소한이라도 챙겨주셔서 국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남은 것도 임시국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임시국회에서 남은 부분들도 잘 처리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셔서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 1개월에 다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기 바란다.

새해에는 경제가 좀 잘 풀렸으면 한다.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경제문제에 관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조금 멀리 내다보면 또 경제 아닌 것이 없다. 경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도 조금도 빠뜨림 없이 잘 챙겨서 각 부처가 맡은 일을 잘 해주기 바란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국정운영하고 해외순방하고 새해 계획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보았다. 해본 결과 한국이 이제 선진국을 목표로 바로, 그야말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가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언제라도 우리가 선진국을 목표로 했지만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계획을 세울 때나 또는 목표를 잡을 때 선진국은 좀 멀리 있고 앞으로 멀리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수준의 목표 이상 현실적인 선진국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지난 2년간의 국정을 전부 종합해 보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목전에 다다라 있다, 문턱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올해에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그야말로 선진한국으로 세워서 바로 선진국을 우리가 달성하는 그런 야심 찬 그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갔으면 좋겠다.

“선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

대체로 우리가 선진국 하면 먼저 경제를 떠올린다. GDP나 국민소득을 떠올리는 데 선진국이 되자면 경제,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식 이와 같은 것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도 소위 선진국의 세계 일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시스템도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은 국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선진국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와 국민이 우리 경제,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박차를 가해나갔으면 좋겠다.

올해 저로서는 3년차를 시작한다. 그래서 취임 2주년, 그리고 3년차를 출발하는 시점에 가서 선진한국의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처에서 부처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목표를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임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온 일을 종합하면 준비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줄속하게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해왔다.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데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선진국의 비전을 가지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좀더 희망적인 미래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 정부로서 할 일은 그 중에서도 역량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 있는 정부가 되도록 정부혁신도 열심히 해나가자.

한두 가지 참고사항만 말씀드리면, 당정분리 원칙은 계속 지켜 나가겠다. 그러나 이 당정분리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집중과 월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고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당정의 협력은 그동안에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또한 당정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무적인 정치적 사안에 관해서 당정분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 영역에 있어서 정부와 당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

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주기 바란다. 그래서 당정분리와 당정협력 관계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들께서 당정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주고 대통령은 당 운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유지해 나가겠다. 당이 시끄럽고 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 정치도 자율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을 더 강화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당이 스스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켜보는 그런 여유, 인내심이 필요하다. 정치가 발전해 가는 과정의 진통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당의 자율을 존중하고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 성공적”

지난 한 해 동안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저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제가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 이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이것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근거 그대로 유용한 것 같다. 그래서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은 새해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총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히 목적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총리의 인사제안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국무회의도 원칙적으로 총리가 계속 주재해 나간다.

오늘은 제가 연초여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총리가 이것은 이 사안은 대통령이 임석해서 함께 토론에 참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는 경우이거나 대통령이 판단해서 이 사안은 꼭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만 참석하고 그 외에는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나갈 것이다.

장관님들이 '대통령 얼굴도 한번 못보고 뭐 그러느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한번씩 보고 여러분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다. 국무회의 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또 실속 있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안전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앞에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총리께서 요령껏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란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다.